

치 사

천년고찰 진관사는 이 땅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한민족과 인고의 세월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길흉화복을 두루 어루만지며 이 땅의 민초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진관 국사께서 본사를 창건한 이후 진관사는 한민족의 역사만큼이나 길게 이어져 온 문화와 호흡하며, 한국의 고유한 불교문화를 올곧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진관사의 전통과 역사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 수록재의 전승입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선대 스님들의 구전과 가르침으로 전승되어 오던 진관사 수록재는 불교의식의 정수이며, 물과 물의 온 생명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의례입니다.

수록재는 나라 안의 크고 작은 근심스런 일이나 경사스런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만성취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법하고 장엄하게 봉행해 왔던 전통 불교의례였으며, 조선 건국과 함께 국가와 왕실 주도로 거행하였던 국가적 의식이었습니다.

진관사 수록재의 가치는 장구한 역사성과 예술, 음악, 미술, 연극, 문화적 가치가 응집된 종합예술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무형문화재이며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현시대 그리고 현대인의 결으로 수록재를 전해주는 데 진력을 다하신 내신 진관사 주지스님과 소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관사 국행수록대재를 통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이락중생의 보살정신을 실천하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여 모든 분들께서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불기2559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